

청소년문화와 질적연구방법론

황 창 순*

- I. 머리말
- II.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 III. 청소년문화와 질적 연구
- IV. 맺음말

I. 머리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청소년 학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인접 학문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²⁾ 사실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청소년학도 아동학이나 노인학과 같이 특정 연령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학문이지만

앞의 두 학문분야와는 달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론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업적의 축적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인접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연구방법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청소년문화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논문의 서두에서는 먼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커다란 두 조류인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와 자연주의에 기초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의 핵심과 이들의 차이점들을 비교한 후에, 청소년문화 연구의 특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 연구에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청소년학의 성립배경 및 의의에 대해 최충우, 1991 볼 것.

2) 청소년 연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연구 1990년 여름, 가을, 겨울호에 실린 다음의 기획 논문들을 볼 것. (한준상, 1990; 김준호, 1990; 정영운, 1990; 김성이, 1990; 이학래, 1990; 이길홍, 1990; 진덕규, 1990; 유영주와 김진숙, 1990; 최광섭, 1990).

II.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에 앞서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유용한 것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패러다임 *paradigm*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마스 쿤(Thomas Kuhn, 1970)은 과학발전의 역사를 수 세기에 걸친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개념과 과학혁명으로 설명한다. 패러다임의 개념이 넓게는 세계관 *Weltanschauungen*으로 부터 좁게는 학문연구의 방법이나 기본가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 특정 이론이나 관점 사이의 차이점이나 일치점,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유형의 학문적 관점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지만 간단히 말해서 연구 패러다임은 대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연구하는 무엇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과 새로 발견한 정보나 이해를 더욱 진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요약하면, 연구 패러다임이란 이론, 방법론, 인식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간단히 “당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패러다임이나 과학혁명의 개념이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적 통찰에 주로 의존해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에 적용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이론적 전망이 진화하는가에 대해 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과학적 패러다임이란 항상 그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받쳐주는 증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성 *anomaly*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똑같은 증거를 새롭게 보거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를 만든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 과정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과학적 증거가 자연과학적 증거에 비해 더욱 모호하거나 증거의 해석에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 역사라는 것이 항상 연구의 목적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의 개념은 사회과학 연구방법과 관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유용하다.

사회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자가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 당면하는 과제는 사회과학도 과학인 이상 자연과학을 모델로 하는 과학성을 살리는 한편 자연과학적 연구대상과는 다른 실체인 사회적 세계가 갖는 독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세계의 독특성과 이 독특성을 설명할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게 되고(김광익, 1985, p.134), 이러한 긴장으로 부터의 선택이 결국 실증주의 *positivism*와 자연주의 *naturalism*라는 두 대립되는 패러다임³⁾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하

3) 물론 사회학 이론이나 사회철학적 논의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패러다임의 구분이 있다. 예를 든다면, 조직이론에서 버렛과 모르간(Burrell and Morgan, 1979)은 객관주의 *objectivism*과 주관주의 *subjectivism*의 차원과 변동과 안정의 차원을 결합해서 네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기도 한다.

도록 만든다(Wilson, 1971; Schwartz and Jacobs, 1975). 실증주의는 결국 합리적 탐구 *rationalistic inquiry*인데 경험분석적, 과학적, 또는 전통적 연구로 알려졌고(Giddens, 1979; Cohen, 1980), 자연주의적 탐구는 상징과학적, 민속지적, 또는 현상학적 연구로 알려져 있다.

1. 실증주의와 양적연구

실증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패러다임은 뉴우톤의 물리학의 모델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 아주 다양하게 설명되지만 논의의 특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Giddens, 1979; Cohen, 1980). 첫째로 합리적 패러다임에서의 연구목적은 가설의 검증 *verification of hypothesis*이고 이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전통에서는 현상의 원인을 추구하는데 미리 형성되고 인지된 가설의 검증을 목표로 삼고, 연구자는 연구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한다.

둘째, 이 패러다임에서 유도되는 이론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맥락 *context*이나 상황 *situation*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 그래서 대개 연구자들은 미리 고정된 연구 설계를 사용하는 실험적 상황에서 탐구의 조건을 통제하게 된다. 이는 여러 변수들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일반화를 수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확률이 중요시되며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자료의 가치가 결정될 위험성이 있다.

세째, 이 연구전통에서 서술에 사용되는 언어는 조사자의 감정이입이 되지않는 순수한 중립성을 지닌다는 믿음이 전제된다. 따라서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인 중요성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에 주어진다.⁴⁾ 이런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것, 또는 불가해한 것은 무의미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쉽다. 실증주의에 근거한 양적연구의 핵심은 사회적 삶의 법칙성을 반복적 관찰과 실험적인 조작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것은 경험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실험과 면접등의 인위적인 방법과 계량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네째, 이러한 연구전통에서 연구자들은 그들의 노력의 신빙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객관성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 패러다임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아닌 연구방법이 오류의 원천으로 부터 보호받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실험설계와 정교한 통계적 방법이 이 전통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론적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상의 인간활동에 숨은 상징과 의미를 포착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삶의 의미가 인과관계의 틀 속에 수용되는 것도 아니며, 반복적인 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기술적으로 정교한 분

4) 이에 대해서는 사회과학 연구의 기본가정을 인식론, 존재론, 인간의 본성, 그리고 방법론의 차원에서 나누어 설명하는 Burrell and Morgan, 1979, pp.1-20을 볼 것.

5)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석학적, 또는 이해사회학적 방법론에 대한 개설적인 입문서로 오스웨이트(Outhwaite, 1975)를 볼 것.

석의 틀, 과학적인 통제, 세련된 설문지와 조직적인 면담 등을 사회(과)학의 방법으로 성격 지우고 있음에 비하여 민속지적 접근을 취하는 인류학자는 자연주의에 더 기울어 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의미의 체계, 태도, 신념, 동기 등을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체계란 조사자의 인위적인 틀에 의해서 재단되고 재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히 그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세계를 서술하는 민속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자연주의와 질적 연구

소위 자연주의라고 불리우는 패러다임에는 여러 종류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지만 인류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속지 *ethnography*에 의해 대표된다. 인류학자 스프래들리 *J. P. Spradley*에 의하면 :

“민속지란 문화를 기술하는 작업이다…… 현장 연구란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을 우리와는 좀 다르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대한 숙달된 연구를 포함한다. 사실 사람을 연구하기 보다는 민속지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민속지의 본질적 핵심은 우리가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와 사건의 의미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1979, p.3).”

민속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연주의적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연주의적 연구의 목적은 가설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인데 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wholistic*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적 탐구자들은 만약에 하나의 체

계안에서 개별 변인들을 다른 변인과 독립적으로 연구한다면, 아다 그 체계의 본질의 어느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결국 자연주의자의 시각에서는 현상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적어도 불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서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historically bounded* 문화적으로 제한되어서 *culturally limited* 인지된다. 전체체계를 연구하고 이론의 제한된 적용에 강조점이 주어짐에 비추어 맥락 *context*이 이러한 연구전통에 중요한 것이 된다. 셋째, 이 전통에서는 실험실에서 조건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대로 연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자는 미리 고정된 연구 설계를 준비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거나 새로운 통찰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연구설계가 다양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이 연구 전통에 대한 비판자들은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의 가정과 접근방법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느니, 잘해야 엄격하지 못한 과학 *soft science*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연주의적 연구방법은 통제가 거의 없고 자료가 주관적이거나 질적인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3. 실증주의와 자연주의의 비교

이 두가지 패러다임은 철학적 기반, 연구목적, 연구가 이루어질 지는 상황, 조건, 그리고 설계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 철학적 기반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합리적 전통은 실증주의적 경향을 보이는데 현상의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심이 있다. 반면에 자연주의적 전통은 현상학자로 서

술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이 그들의 연구대상에 의해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더욱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탐구의 목적도 이 두 연구전통을 구별짓는다. 합리적 전통이 미리 형성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데 비해서 자연주의적 탐구는 연구의 시작에서 가설검증의 제약을 피하고, 대신에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대로의 상황의 관계나 설명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구자순, 1987).

연구목적은 연구상황*setting*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합리적 전통은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그래서 이러한 통제에는 실제 환경에서 보다는 실험실에서 더 용이하게 된다. 자연주의적 탐구는 말 자체가 내포하듯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대로의 현상에 관심이 많다. 이 전통에서 보면 실험실 연구는 연구 대상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상황에 그 발견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합리적 전통의 연구설계는 사전에 충분히 결정된다. 그래서 연구가 일단 진행된 후에 연구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변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도록 한다. 반면에 자연주의적 전통은 완전한 연구설계를 미리 준비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상황에 인위적으로 많은 제한을 부과한다면 연구대상에 대한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이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이해함에 따라 연구자는 더욱 분명하고 타당한 개념화를 수립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설계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서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하고서 얻어진 특정의 자료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패러다임 사이의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신빙성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사용도 다르다. 합리적 전통의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는 연구현상에 대한 경쟁적인 설명이 진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수립될 수 있다. 즉, 전형적인 실증적 조사연구의 영가설 *null hypothesis*과 통계적 의의의 개념이 여기 해당한다. 자연주의적 전통에서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은 믿음성 *credibility*이다. 자연주의적 전통에서의 관심은 설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실체 *reality*와 일치되는가에 있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전통에서는 실체가 보편적이거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실체는 연구대상 사람들의 집단인 자료에 의해 정의된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는 다면적 *multiple*인 자료수집방법과 자료원 *data sources*을 사용하는데, 이를 삼각법 *triangulation*이라고 하고, 또한 연구자 자신의 해석을 다른 자료 원천과 비교하여 체크하는데, 이를 성원체크 *member checks*라고 한다.

합리적 전통에서의 외적 타당도 *external validity*, 또는 일반성 *generality*은 연구자가 일반화하기를 원하는 모집단에서의 적절한 표집에 의해 높여질 수 있다. 한편 단일 실체의 개념을 부정하는 자연적 전통은 발견한 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발견된 것이 다른 상황에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는 연구상황과 다른 상황사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부합의 정도는 연구상황에 대해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평가되며, 그래서 연구대상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질은 서술 *thick*

*description*⁶⁾이 요구되는 것이다.

두 전통은 공히 도구화 *instrumentation*의 일관성 *consistency*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적절한 일관성이 없다면 결과의 타당도를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자들은 모든 도구적 이동을 오류로서 취급하지만 자연주의자들은 다면적 실체를 믿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 도구는 피로와 같은 인간적 오류 뿐만 아니라 통찰과 감수성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찰대상의 불완전성이 피로는 보다 사실적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 적어도 자연주의적 연구자들은 감사(監査)의 흔적, 즉 자료원과 탐구과정 및 해석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의 믿음직스러움 *dependability*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성 *objectivity*의 개념은 두 전통에서 약간 다르게 취급된다. 합리적 탐구는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도구화라는 매개를 이용한다. 반면에 자연적 전통은 자료와 해석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더욱 관심이 있다. 지속적인 자기성찰 *reflexivity*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문제형성,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가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자연주의적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 미리 형성된 가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이미 형성된 관점이나 이해의 잠

재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연구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이 가끔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약점이 있다. 심층면접 *depth interview*,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그리고 기록분석 *document analysis* 등과 같은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수집방법은 자동화되기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더구나 그럴듯한 자연주의적 연구를 하려면 자세한 기록, 복수의 연구자, 그리고 복수의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는 모두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사항들이다.⁷⁾ 이상에서 논의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방법론적인 함축성을 청소년 연구, 특히 청소년 문화연구에 적용시켜 보자.

III. 청소년문화와 질적 연구

1. 문화의 개념과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의 대상인 문화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학의 주된 연구주제이면서 다른 인접 사회과학에서도 폭넓게 쓰여지는 문화의 개념은 흔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행동과학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모호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락혼(Clyde Klockholn)은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1) 인간의 삶의 전체적 방식, (2) 인간이

6) 특히 Geertz, 1973, 1장을 볼 것. 여기서 *thick description*은 증충적 서술(김광익, 1985)로 번역되기도 하고 짙은 묘사(김용학, 1992)로도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짙은 서술로 사용한다.

7) 질적 연구방법에도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발전되어 온 여러가지의 분파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Jacobs, 1987, pp.34-35; 이용숙, 1989, pp.46-48 볼 것.

그가 속한 집단으로 부터 획득하는 사회적 유산, (3)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양식, (4) 행동으로 부터의 추상, (5) 한 집단의 사람이 실제 행하는 방식에 관한 인류학자의 이론, (6) 학습거리의 저장소, (7)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경향의 묶음, (8) 학습된 행동, (9) 행동의 규범적인 규제의 메카니즘, (10) 외부의 환경과 타인에 대해 적응하는 기술의 묶음, (11) 역사의 침전물 들이 있다 (Geertz, 1973, Pp.4-5에서 재인용).

위의 다양한 정의가 보여주는 것은 문화란 인간 삶의 아주 많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개념의 포괄성이 역설적으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의 어려움과 모호성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기는 하나 대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테일러(Taylor)로 대표되는 총체론적 입장을 대체로 잘 대변하는 문화의 개념으로서 “문화란 인간의 삶의 보편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으로서 도구, 기술, 사회조직, 언어, 관습, 신앙 등을 문화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총체론적 입장은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따르는 입장으로서 문화를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공유하는 공통적인 생활 양식으로서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과 태도를 포함한 모든 행위와 그런 행위의 산물을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요약하자면, 총체론적 입장에서 문화는 언어, 예술, 신앙, 지식, 가치관, 이념, 도덕, 법률, 관습, 규범, 예절, 기술,

도구, 산물 등과 같은 인간생활 경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두번째 문화를 정의하는 입장은 첫번째의 정의보다 관념론적인 경향이 강하다. 관념론적으로 문화를 정의하는 즉의 관념으로서의 문화란 “생활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로서 정의되며 도구, 행동, 제도 등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사고양식, 행동의 기준이나 규칙을 문화로 보는 것이다(황정규, 1992;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1985). 관념론적 입장을 대체로 잘 대변하는 상징인류학에서는 모든 문화는 상징체계(symbol systems)의 집합체로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Geertz, 1973), 이러한 상징체계는 기본적으로 언어라든지, 결혼의 법칙, 경제관계, 예술, 과학, 그리고 종교가 해당한다. 이런 모든 체계는 물리적, 사회적 실체의 특정 측면이나, 더 나아가 두 종류의 실체가 서로 유지하고 상징체계 사이가 서로 유지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문화의 개념을 연구대상의 존재방식에서 본다면 총체론적 입장에서는 문화가 어떤 분명한 경험적 실체로서 존재하는데 반해 관념론적 입장에서는 경험적 실체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일종의 관념으로서 또는 관념이 함유된 법칙이나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⁸⁾

문화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청소년 문화를 정의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청소년 문화를 가장 간단히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경험 및 사고 유형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전체가 소유한 문화의 하위체계”(황정규, 1992, p. 5)라고 정

8) 문화연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설서로서 Langness, 1975를 볼 것.

의 내리기도 하고, 또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로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윤리의식과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계, 오락 및 여가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구조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양식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고 정의한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총체론적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외적인 관찰이 용이한 행동, 언어, 복장, 여가활동과 쉽게 관찰할 수는 없으나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태도, 가치관, 이념, 정서상태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정의와 비슷하게 청소년문화를 청소년의 사회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즉, 청소년 사회는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와 연합의 조직화된 연결망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문화란 청소년의 삶의 양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함종한, 1992, p. 233; Rice, 1985, p. 272).

한편, 이용숙(1992, p. 16)은 청소년문화를 약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란 “한국사회의 하나의 하위집단인 중고등학교의 구성원들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서 개발, 축적, 학습하여온 공유된 지식과 그 지식을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연속적인 대화(말, 행동, 상징등)를 의미한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대화에 나타난 상징이나 유형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의 내면적, 또는 외면적 행위양식이라고 할 경우, 그들의 지식, 가치, 태도, 신념체제, 사고의 유형, 소망이나 의사표현을 위한 지적 창조물 또는 의식의 체계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욕구나 희망을

만족시켜주는 문화적 내용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강수, 1983, p. 279).

청소년문화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은 위에서처럼 개념자체를 정의하기 보다 청소년문화의 성격이나, 특징, 구성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흔한 주장으로서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하위 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지, 청소년의 생활양식은 성인들의 생활양식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청소년문화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성인들은 생산적인 노동, 관습에 순응,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하여 청소년들은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추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주장들이다.

비록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꼭 문화분석에 집중되지 않았다 해도 청소년의 행위, 청소년의 삶의 구조, 문화의 계급성이라든지 문화의 사회화 과정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직접·간접으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문화의 성격의 분석에서는 청소년 문화란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하위문화로서 청소년들이 창조하고 선택하고 향유하는 취향문화의 하나이며(이강수, 1983), 그 성격은 반문화적이며(정경희, 1983) 대중문화적이다. 형성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문화 또는 청소년들의 행위양식의 형성은 물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의 요인도 작용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작용요인은 그들의 성장과정 내지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의 동인인 집단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가장 큰 작용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을 연구할 때 의식조사의 구성 항목이 청소년 문화의 구성요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 학

교, 직업, 친구, 자유시간, 지역사회, 사회와 국가에 대한 태도, 의식구조나 가치관, 태도, 심리적 갈등, 좌절감, 불신, 소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등이 청소년문화의 주요 구성요소들이다. 이에 더하여 말씨, 패션, 옷이나 엑세서리의 유형, 치장, 사회화 과정, 수업, 직업, 여가, 음악, 잡지나 영화, 먹거리와 생활양식, 유행, 우상만들기, 체육이나 연예계의 스타에 대한 열정, 대중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전염성까지도 청소년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청소년문화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2. 문화에 대한 연구방법

문화파악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강수(1983, pp. 278-279)는 “문화를 생각할 때 이를 역사적, 사회적 과정 속에서 파악함과 동시에 그러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를 일정한 역사적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소산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과정속에서 숨쉬고 있는 인간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하고, 표현하고, 향유되어지는 문화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화파악의 기본지침에 더해서 사회학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은 몇개로 나눌 수 있는데(Wuthnow, 1987), 크게는 주관적인 의미의 이해를 강조하는 관점과 의미의 문제를 넘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체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주관적 입장에서는 문화란

적절히 설명되려면 사회구조의 객관적 차원과 연결되는 주관적 신념의 문제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화연구는 현대인이 당면한 소외, 아노미, 무의미의 문제와 의미를 추구하는 믿음의 이해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연구의 방법론은 상징과 관련이 있는 깊은 의미의 탐구로 모아지고, 기어츠가 주장했듯이 문화 분석은 과학적(scientific)인 것이 되기보다는 해석학적, 이해사회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기어츠는 계속해서 인간이란 자신이 만드는 상징의 망에 걸려있는 동물이고, 문화를 이러한 상징의 망이라고 한다면 문화의 분석은 법칙을 추구하는 실험과학이라기 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적인 과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Geertz, 1973, 1983; Wuthnow, 1987). 이런 전통에서는 상징을 객관적 실체로 취급하고 이러한 상징에 부여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문화분석에 적용할 방법으로서 기어츠는 짙은 서술 *thick description*을 강조하는데 사례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경험적 규칙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서술하는 것을 추구한다(Geertz, 1973, ch. 1). 조사연구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친화성이 있다면 이러한 전통은 참여 관찰과 대화의 분석에 친화성이 있다. 양화 *quantification*하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보고 이 연구전통에서는 연구대상이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충분히 구별하기 위해 덜 구조화된 방법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편 주관주의와 구조주의를 접목하는 후기구조주의에서는⁹⁾ 문화에 대해 보다 넓은 접근

9) 문화연구를 고전주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로 나누는 것은 우스노(Wuthnow, 1987)의 분류이다. 후기구조주의적 문화

태도를 취한다. 문화의 정의는 신념이나 태도, 상징적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의 개념은 광범위하여 그것은 언어의 형태나 쓰여진 코드 *written codes* 뿐만 아니라, 감옥이 조직화되거나, 병원이 운영되고,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의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문화란 이념이나 아이디어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회조직과 같은 것도 아니다. 후기구조주의에서 문화의 정의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문화란 사회적 행동의 의사소통적이거나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측면 *communicative and symbolic-expressive aspects of social behavior*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청소년문화와 질적 연구방법

실험실의 과학은 대개 보편적이라고 불리우는 “법칙들”, 즉 사물이나 사건의 규칙성의 발견에 대개 사로 잡혀있다. 고전적 패러다임의 엄격한 조작화를 청소년문화 연구에 적용한다면 두가지 한계를 가질 것이다. 첫째는, 탐구내용의 제한에다 대단히 유용할 가능성이 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둘째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이론화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상황과 연구대상의 관점으로 부터의 이해를 강조하는 자연주의적 연구는 다양한 사회환경에 노출되어 형성되는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관심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점에서 질적 연구가 청소년문화 연구의 하

나의 적절한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연구문제에 접근하는 탐구수단을 확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 자체가 탐구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오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연주의적 연구는 특히 사회과정 *social process*의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사회과정과 현실세계는 사실 실험적 접근의 메카니즘으로 변형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연구가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¹⁰⁾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주의적 연구를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전통의 패러다임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민속지의 방법론적 훈련, 면접, 기록분석, 그리고 참여관찰은 많은 훈련과 실습을 필요로 한다. 물론 질적 연구방법이 청소년문화 연구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질적인 연구방법의 수용은 연구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의 다원성 *pluralism*을 의미한다.

방법론으로서의 질적 연구가 엄격하지 못한 연구 *soft research*가 아니라 그 나름의 전통을 가진 방법론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숙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연구진영에서의 비판이다. 그들은 자연주의적 전통이 질적 자료를 사용하며 통제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연적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보이는 학자로서 그는 Mary Douglas, Michelle Foucault, Jürgen Habermas를 들고 있다. 이들 학자들의 문화적 분석에 대해서는 Wuthnow et al. 1984를 볼 것

10) 질적 연구방법의 논리와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책 가운데 Glaser and Strauss, 1976; Schatzman and Strauss, 1973; Collins, 1984; Becker, 1958; Strauss, 1987 볼 것.

비판은 주로 인류학자에게서 나온다. 인류학자의 비판의 핵심은 몇몇 어설픈 질적 연구가 자연주의적 연구의 증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교육학에서 일어났다고 비판한 미국 교육학회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많은 인류학자들은 교육학자들의 질적 방법론에 대한 열정적인 집착을 경고로서 바라본다. 민속지 *ethnography*는 교육학에서 떠들석하게 인기있는 단어가 되고, 최근의 방법론적인 시대정신 *Zeitgeist*이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학에 배경이 거의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민속지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민속지 연구가 때로는 조잡하거나, 허술하게 수행되거나, 잘못 개념화된 많은 연구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딱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Kuzel, 1989, p.51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전통에 필요한 것은 이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며, 가치있는 연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투자하는 충분한 시간인 것이다. 비록 그러한 만족스러운 탐구를 위한 시간과 돈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이 연구전통의 제한점이기는 하지만 적절히 사용한다면 이 연구 패러다임에 의해 청소년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잠재적으로 깊이 있는 현상의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IV. 맺음말

질적 연구방법을 청소년문화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화현실에 대한 현장감각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또래의 형성이나 언어에 대한 문

화적 연구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사회나 청소년 제도의 구조적 측면을 밝히는 연구가 청소년에 대한 거시적인 경향에 대한 지식을 증대할 수 있는데 반해, 청소년문화를 질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미시적 측면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동시대 청소년의 언어적 관습이나 친구관계 등의 삶의 미시적 측면을 사실적으로 밝힘으로써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이 가진 사실성에 대한 맹점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의미와 상징의 세계를 포함하는 청소년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숨겨진 구조(hidden structure)를 밝혀줌으로써 표피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숨겨진 원인을 밝히거나 행동이나 태도의 깊은 구조를 밝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동이나 습관을 연구하려고 할 때 태도조사나 사회조사에 근거한 연구들이 단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극히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거림으로서 청소년 문화현상이 가진 가치지향적이고 의미함축적인 측면을 추출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이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설문조사 중심의 사회조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여 준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연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청소년의 마음의 습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슴의 보자기를 풀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청소년의 머리와 두뇌에 기초해서 인식한 것으로 느껴진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급진적인 전환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공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실증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태도조사와 사회조사연구가 중요하며 또 그것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마음의 습관을 알려주는 문화적 분석 *cultural analysis*의 연구가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분석이라 함은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는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접 *depth interview*에 주로 의존하는 민속지적 연구방법에 가깝고, 인식의 방법으로는 연구대상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지각하는 방법과 삶의 다양한 편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미가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감정이입과 해석적인 연구방법인 것이다(Wuthnow et al. 1984).

이러한 문화적 분석으로 부터 알고자 하는 바는 벨라와 그의 동료가 그들의 저서에서(Bellah et al., 1985) 이해한 것과 유사하게 요즈음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을 감지하는데 어떤 원천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청소년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그들의 행동에 연결시키는지 하는 것들이다(Greeley, 1985; Lieberman, 1992).

민속지적 연구방법이든 해석적 연구방법이든 방법론적 다양성을 통해 청소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마음의 습관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 주위에 맴도는 어두운 단골주제들인 청소년 문제와 범죄, 약물중독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살청소년, 청소년의 고민과 좌절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이상, 청소년이 가진 놀라운 감수성과 순수한 열정, 사춘기 청소년이 가진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작은 시민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누군가 자신들을 마술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청소년문화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한 대의명분과 타당성을 가진 연구방법일수록 대개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문화적 분석이 이러한 경우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실증주의적 사회조사 연구가 대의명분과 타당성이 적다거나 연구작업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곤란하다. 어쨌든 질적 연구방법을 청소년문화 연구에 적용해 보는 것은 도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자순(1987), “사회연구와 질적·양적방법의 비교론적 검토,” 사회학연구 세째책 pp. 110-128.
- 김광익(1985),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pp. 131-158.
- 김성이(1990),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 pp. 5-18.
- 김용학(1992), “비교사회학의 방법과 주요 쟁점들,” pp. 23-48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부산: 열음사.

- 김준호(1990), “사회학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pp. 18-33.
- 유영주, 김진숙(1990), “가정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3호 pp. 19-35.
- 이강수(1983, “청소년문화와 대중문화.” 현pp. 278-294. 대사회와 청소년. 서울: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길홍(1990),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 pp. 33-48.
- 이용숙(1989), “문화기술적 수업연구 방법.” 한국교육 제16권 제1호 pp. 41-79.
- _____(1992), “한국중등학교 문화의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2호 pp. 15-33.
- 이학래(1990), “체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 pp. 19-32.
- 정경희(1983), “청소년 문화와 대중문화 (2).” pp.295-306. 현대사회와 청소년. 서울: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
- 정영윤(1990), “심리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pp. 34-49.
- 진덕규(1990), “한국의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치학적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3호 pp. 5-18.
- 최창섭(1990), “신문방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3호 pp. 36-47.
- 최충옥(1991), “청소년학의 정립을 위한 시론.” 1991년 청소년학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1985),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준상(1990), “교육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pp. 5-17.
- 함종한(1992), 청소년학원론.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황정규(1992), “한국청소년 문화의 개념과 특성의 개략적 분석.” pp.1-92. 황정규, 이제학, 정지웅, 안귀덕, 박동준. 청소년 문화의 변천과정.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ecker, Howard. 1958. “Problems of Influence and Proof in Participant Observ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652-60.
- Bellah, Robert N.,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and Steven M. Tipton.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rrell, Gibson and Gareth Morgan.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 Cohen, P. 1980. “Is Positivism Dead.” *Sociological Review* 28:141-76.
- Collins, Randall. 1984. “Statistics versus Words.” *Sociological Theory*. pp.329-61.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3.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a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nthony. 1979. “Positivism and Its

- Critics." in Tom Bottomore and Robert Nisbet (eds.), *A History of Sociological Analysis*. London: Heineman.
- Glaser, B. and A.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 Greeley, Andrew M. 1985. Review of Habits of the Heart, by Robert N. Bellah et al.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0:114.
- Jacob, E. 1987.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1-50.
- Kuhn, Thoma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Kuzel, Anton J. 1989. "Naturalistic Inquiry: An Appropriate Model for Family Medicine." *Family Medicine* 21 : 51-57.
- Langness, L. 1975. *The Study of Culture*. San Francisco: Chandler & Sharp Publishers.
- Lieberson, Stanley. 1992. "Einstein, Renoir, and Greeley: Evidenc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1-15.
- Outhwaite, William. 1975. *Understanding Social Life: The Method Called Verstehe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Rice, F. Philip. 1985.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Schatzman, Leonard and Anselm L. Strauss. 1973. *Field Research: Strategies for A Natur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chwartz, Howard, Jerry Jacobs. 1979. *Qualitative Sociology: A Method to the Madness*. New York: The Free Press.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Strauss, Anselm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T. 1971. "Normative and Interpretative Paradigms in Sociology." in J. D. Douglas(ed.) *Understanding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Wuthnow, Robert. 1987. *Meaning and Moral 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uthnow, Robert, James Davison Hunter, Albert Bergesen, Edith Kurzweil. 1984. *Cultural Analysi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